

일본 개소류 공략 방안 (양파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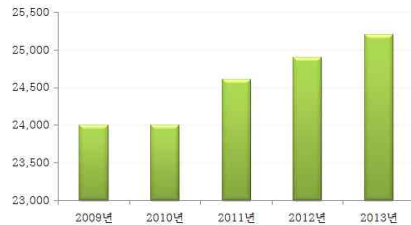
- 가격전략보다는 고품질을 확보하는 고급상품화 전략이 필요 -

(2014.12.31)

일본의 양파 생산현황

- 일본 양파 경작지는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지만, 기후불순 등의 사유로 면적(h)당 수확량과 출하량은 보합세를 유지.
- 수확량 : ['09년 1,022천t → ['11 942천t → ['13 942 천t

일본 양파 재배 면적 추이(h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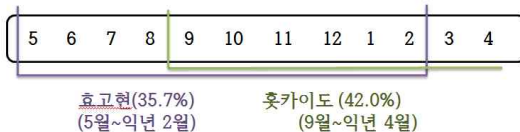


일본 양파의 수확량·출하량의 추이(천t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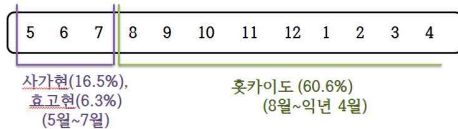
- 일본 내 양파 출하량 순위는('13년 기준) 출하량의 53.4%를 차지하는 홋카이도, 11.4%를 차지하는 사가현, 그 뒤를 이어 효고현 순.
- 일본 오사카에서는 양파는 연중생산 및 유통되고 있으나, 5월~익년2월은 효고현산이 9월~익년2월까지의 홋카이도산이 출하. (오사카중앙도매시장 기준)

오사카도매시장 ('12년 출하량 기준)



- 일본 동경에서도 양파는 연중생산 및 유통되고 있으나, 5월~7월은 효고현산, 사가현이 8월~익년4월까지의 홋카이도산이 출하. (동경오다도매시장 기준)

동경도매시장 ('12년 출하량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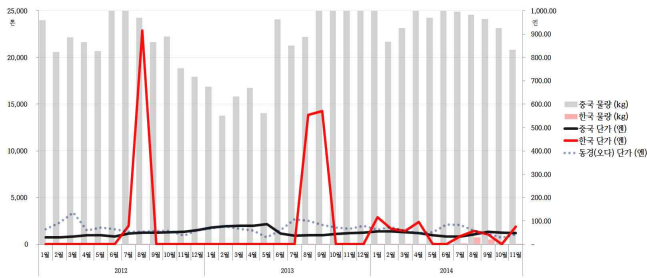


양파 수입현황

- 일본에서의 양파 수입은 일본 내 양파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연간 30만톤이 상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, 그 중 85%정도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, 매월 2만톤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음.
- 중국산 양파의 kg당 단가가 일시적으로 상승(70~80엔) 기간('13.1~5월)을 제외하고는 평균 30~50엔으로 거래되고 있으며, 이러한 단가는 양파수입의 변동과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- '14년 한국산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1.5천톤이 수입 판매되었으나, 다소간의 품질 문제로 바이어의 평가는 좋지 못한 편.

<일본의 양파 도매시장 취급단가(엔)에 따른 수입량 변동추이>



일본 시장 양파 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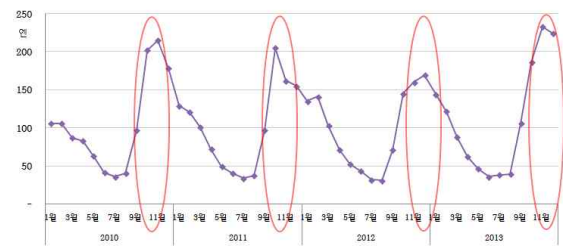
- 일본 양파의 주요 품종에는 황 양파, 백 양파, 적 양파, 샐러드 양파가 있으며, 일본에서는 주로 카레, 스프, 마리네, 샐러드로 많이 먹고 있음.

<일본 양파의 주요 품종>

			
황 양파	백 양파	적 양파	샐러드 양파
다소 매운 맛이 있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파군	매운 맛과 자극적인 냄새가 적은 다소 단 맛의 양파. 샐러드용으로 자주 사용	수분이 많고 단맛이 있음. 샐러드에 주로 사용되며, 식초를 첨가하면 분홍색으로 변함.	단맛이 많고 매운맛은 적은 샐러드 전용 양파 3월말부터 유통되는 조생종

- 일본에서 1인당 양파 소비량이 많아지는 시기는 9월부터 2월이며, 이는 가을과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음식인 카레, 스프 등의 요리에 부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데에 기인함.

<1세대 당 월별 양파 소비금액(엔) 변동 추이 >



시사점

- 일본 내 양파의 수요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, '14.8월 중국산 양파의 안전성 문제 발생 및 일본산 양파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하여 수입산 양파에 대해서는 품질보다는 가격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음.
- 이에 한국산 양파의 지속적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산의 가격이 아닌, 한국산 양파의 우수성과 맛을 일본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선행되어야 함.

* 참고자료 :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및 농림수산업 채소류 생산통계 등